

보도해명자료

(15.12.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종합상사의 부활' 정부, 대기업 중심 전문무역상사
100여개社 지정키로(15.12.1. 문화)

1. 기사내용

- ☐ 정부는 **대기업을 중심으로**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예정임
- ☐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된 업체는 일정 수출 실적을 초과 달성할 경우 **세무조사 면제** 등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☐ 현재 **167개** 전문무역상사를 기지정(14.9)하여 운영중이며, 금번 추가지정은 기업 규모에 관계 없이 법정 요건*에 충족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임

* 전문무역상사 요건 : ① 최근 3년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1백만불, 수출실적 중 타 중소·중견기업 제품 수출비중이 30% 이상
②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농업·어업·수산업, 서비스업 등 분야의 조합 등 특수법인은 주무부처 장관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경우 선정 가능

- ☐ 전문무역상사로 지정될 경우, 우수 제조업체 매칭, 해외전시회 파견 등의 혜택은 있으나 **세무조사 감면의 혜택은 없음**

※ 관련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진흥과장 이경호 (044-203-4030)
사무관 정성훈 (044-203-4035)